

학적 검사로 췌장의 종양이 확진됨으로서 결정적인 치료를 조기에 실시하게 되었다. 지난 5년 간에 걸쳐 췌장의 소도세포종양으로 천자 세포학적으로 진단되고, 후속적으로 절제된 표본에서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5예의 세포학적 소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말배경은 깨끗하고 괴사의 소견은 없었다. 간혹 천자 등에 의한 외상성 출혈 소견이 관찰되었다.
2. 종양 세포들은 풍부하게 도말되고, 독립된 개개 세포들과 함께 세 포군으로 나타났다. 세 포군을 이루는 종양 세포들은 견고한 판상, 유두상 및 선방상으로 배열하였다.
3. 종양 세포의 세포질은 호산성으로 붉게 염색되고, 중등도의 크기를 가지며, 세포의 변연부가 뚜렷하였다.
4. 종양 세포의 핵은 작고, 세포질의 중앙 또는 한쪽에 위치하고, 원형 또는 난원형이었다. 핵의 염색질은 섬세한 파립상이고, 핵소체가 잘 관찰되지 않고, 나타날 경우 작고 둥근 핵소체가 핵의 중앙에 위치하였다.
5. 세포학적으로 감별을 필요로 하는 췌장의 종양으로서 선방 세포 암종(acinar cell carcinoma)와 고형성 유두상 상피성 종양(solid and papillary epithelial neoplasia of pancreas)이었다.

10. 갑상선 질환의 세침흡인 세포검사의 유용성에 관한 세포병리학적 연구

A cytopathologic study on usefulness of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in the evaluation of thyroid disease

박인애, 함익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 교실

갑상선이 증대되어 결절로 만져지는 경우 임상적으로 양성 질환인지 악성 질환 인지를 감별하여 내과적 혹은 외과적 치료 원칙을 결정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하여 이들을 진단하기 위하여 방사선 동위원소 주사검사나 초음파 검사가 이용되어져 왔으나, 최근 세침 흡인 세포검사가 갑상선 결절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로 시도되어 높은 진단 정확도를 보여, 갑상선 질환을 진단하는데 타당성 있는 검사로 자리 잡혔으며, 특히 최근에는 갑상선 질환을 진단하는데 방사성 동위원소 검사나 초음파 검사 보다도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경제적인 검사로 간주되어져 가고 있다. 이 세침 흡인 세포 검사가 갑상선 질환을 진단하여 치료방침을 결정하는데 이용되기 위해서는 그 진단의 정확도가 필수적으로 요구 된다고 하겠는데, 그 성직은 세침흡인 생검 시술자와 진단하는 세포 병리 의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저자들의 갑상선 결절의 세침 흡인 세포 검사의 진단 성적을 검토하여 보고자 하였다. 연자들은 1990년 부터 1991년 까지 2년 동안 서울 대학교 병리 병리과에서 진단된 갑상선 세침흡인 세포검사 1594예의 진단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소견을 얻었다.

1. 총 1594 예 중 410 예 (25.7%)에서는 진단 가능한 세포가 관찰되지 않았고 180 예 (11.3%)에서는 양성 질환, 758 예 (47.6%)는 갑상선 선종, 27 예 (1.7%)는 갑상선 여포 세포 증식이 있으므로

63 예(3.1%)는 악성 질환이 의심 되는 것으로, 14 예(0.9%)는 Hashimoto 씨 갑상선염으로, 103 예(5.9%)에는 유두상 암으로 진단되었고, 1 예는 수지암으로, 8 예(0.5%)는 전이암으로, 25 예가 여포세포 종양(follicular neoplasm)으로 진단되었었다.

2. 이중 132 예에서 수술 후 조직 검사 진단과 비교 검토가 가능하였는데 이 중 위 음성으로 진단되었던 예들은 11 예로 이들은 대부분이 세포 병리 검사상 갑상선종으로 진단되었으나 수술후 유두상 암으로 확진되었다. 위 양성으로 진단되었던 예들은 12 예로 악성이 의심되었으나, 수술 후 갑상선종이나 갑상선 여포 선종, 혹은 갑상선염으로 진단된 예들 이었다.

3. 조직검사 진단과 세포병리 진단 성적을 비교하여 보면 민감도는 85.7% 특이도는 78.1%, 진단정확도는 82.5%, 위양성도는 9%, 위음성도는 8.3% 이었다. 이 중 위음성도가 높은 것은 세포 병리 진단상 악성이 의심된 예들을 확인하기 위해 수술이 시행된 예들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4. 같은 기간동안 시행된 갑상선 수술은 1990년에는 163 예로 이중 93 예(57%)가 양성 질환 이었고 70 예(43%)가 악성 질환 이었으나 1991년에는 총 180 예 중 80 예(44.4%)가 양성 질환, 100 예(55.6%)가 악성 질환으로 인한 수술 빈도가 증가되어 있어, 갑상선 세침 흡인 세포 검사가 양성 갑상선 질환의 불필요한 진단적 수술의 빈도를 줄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